네팔, 궁금한 이야기

[결연아동 이야기]

수공 카페트를 짜는 어머니의 아들 무스칸

무스칸 카드카

카페트를 만드는 무스칸의 어머니

무스칸 카드카의 가족

밀알복지재단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스칸 카드카에요. 올 해 4학년이 된 저는 프라밧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밀알복지재단에서 결연 후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 어머니와 함께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형은 아직 나이가 어려 일을 할 수 없어 어머니가 만든 수공 카페트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페트를 만드는 일은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겨우 1개를 만들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 가족은 종종 끼니를 거르기도 해요.

무스칸 카드카의 하루

저는 후원자님을 만난 이후로 매일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카자(간식)와 찌야(네팔식 홍차)를 마시고 10시까지 학교로 걸어가요. 학교에서는 1시까지 오전 수업을 듣고 급식을 먹어요. 집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 점심을 거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급식으로 나오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놀다가 숙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희 가족은 8시에 함께 저녁을 먹어요. 저희 집에는 밤에 빛을 밝혀줄 한 개의 백열등이 있지만 이마저도 정전으로 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가끔은 어두운 방안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해요.

무스칸 카드카의 꿈

후원자님 저는 커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곳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에요. 저는 후원자님의 지원으로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후원자님은 한국에서 어떤 꿈을 갖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은 한 아이의 미래를 환하게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삶이 바뀌면 네팔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아동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1.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성장발달보고서와 크리스마스카드는 2015년 11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2.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5년 4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밀알복지재단
(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2층(수서동)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회원메일 membership@miral.org www.miral.org

www.miral.org

다섯번째 이야기

네팔 사업장 소식

밀알복지재단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특별활동 미술교실 개강

2014년 7월, 네팔의 3개 사업장에서는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미술교실을 개강했습니다. 네팔 정규 교육과정에는 예체능 과목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미술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미술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이용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신기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매년 수업에 참여해온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하며 서로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

지난 8월 전국에서 모인 9명의 후원자는 제 1회 'Let's go together!'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네팔 밀알학교와 3곳의 결연 사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함께 비눗방울 놀이, 풍선아트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 만들기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으며, 후원자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결연아동을 직접 만나는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은 후원자의 해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연아동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알복지재단의 해외 사업은 후원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교복 지급

2014년 9월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복이 지급되었습니다. 네팔의 많은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옷을 구입하지 못해 교복을 평상복처럼 입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헤지거나 제때 세탁을 하지 못해 더러워진 교복을 매일같이 입고 다닙니다. 네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매년 모든 결연아동의 신체치수를 직접 재서 꼭 맞는 교복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새 교복을 받고 신이 난 아이들은 옷을 몸에 대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모든 아이들이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결연 사업장 지원 실시(프라밧 학교)

지난 9월 신규 사업장으로 선정된 프라밧 학교를 통해 200여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결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라밧 사업장에 소속된 아이들은 수업료, 급식, 학용품과 같은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구충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회원님의 지원을 통해 네팔에서는 총 4개 사업장에서 400여명의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네팔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하반기 학용품 지원

2014년 10월 새 학기를 맞아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학용품을 나눠줄 때만 해도 줄을 서본 적이 없어 우왕좌왕 하느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매학기 마다 학용품 지원을 받으면서 질서 의식이 생긴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줄을 설 정도로 몸과 마음 모두 쑥쑥 자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새 공책과 연필을 받고 신이 난 아이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갖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세요.

네팔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밀알복지재단 네팔 사업장 프로젝트 매니저 김정근 입니다. 네팔과 결연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팔 사업장은 수도 카투만두시 외곽에 위치해있으며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를 찾은 사람들이 모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도 제때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교육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결연 후원을 받는 아이들은 지역사회와 네팔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사업장 김정근 프로젝트 매니저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COMING SOON

장학금 지급
2015년 3월,
각 사업장별로 2~3명의 성적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 지급 예정

상반기 구충제 보급
2015년 3월,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구충제 보급 및 위생교육 실시 예정

아동 교복 지원
2015년 5월,
새 학기 교복 지급 예정

결연아동 대상 직업교육
2015년 6월,
밀알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예정
(각 사업장별로 10명을 선정하여 주 5회 제과제빵, 제봉, 컴퓨터수업을 진행할 예정)